

일본, 저녁에 착유 다음날 판매하는 우유 인기

일본 혼슈지역 낙농가들이 생산하는 저녁에 착유하여 아침에 판매하는 우유의 인기가 상승하여 물량이 달리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 지역 아이치현에서 17개 낙농가들이 생산한 우유를 현지의 주민 식탁에 올리기 위해 지난 '07년부터 시판한 우유가 인기가 있어 지난해 판매량이 전년대비 14%가 늘어난 41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발표되었다. '아주 맛있다'라는 지방방언을 브랜드로 한 이 우유는 빨간색 팩에 소년의 일러스트를 담고 있는데 착유한 시간부터 팩포장까지 시간이 짧아 풍미가 다른 점이 인기의 비결로 알려졌다. 현재 슈퍼를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약국체인이나 편의점 판매도 개시하여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으며 판매가격은 1리터에 198엔에서 218엔(3,200원). 매달 5만개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우유는 현재 관련 상품으로 요구르트나 식빵도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농업신문 1월 21일자)

일본, 코점막 살포 가축 백신효과 증진제 개발

일본의 의료메이커가 가축전염병 백신의 효과를 높이는 증진제로 안정성이 높은 코점막 살포제를 개발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코점막 처리제는 접종 방식에 비해 처리가 간단하고 코 점막으로부터 체내에 효율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처리량을 줄일수 있어 접종 비용을 줄일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개발된 증진제는 식품에 포함된 이노신산과 시치질산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코살포 방식은 세계최초로 백신에 첨가해 사용하면 코, 호흡기계를 통해 전신에 넓게 예방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접종량도 주사에 의한 피하접종에 비해 소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돼지 번식호흡장애증후군(PRRS)이나 가축 인플레자 실험에서는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양계용으로는 사위 분무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에 개발된 증

진제는 액체에 비해 장기보전이나 수송이 간편한 태블릿 형태로 1정당 돼지는 100~1천두, 닭은 1천마리 이상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농업신문 1월 12일자)

뉴질랜드, 지난해 12월 유제품 수출 사상 최고

뉴질랜드의 세계적 유업체인 폰테라사는 중국과 개발도상국의 수요증가로 지난해 12월 유제품 수출액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폰테라사의 12월 유제품 수출량은 24만6천톤으로 금액상으로도 뉴질랜드 12월 국가 수출액 13억달러의 4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종전 월간 최대수출물량은 지난 3월에 수립한 22만9천톤으로 이같은 우유 수출량 증가는 지난해 가을 날씨 호조로 조사료 생육이 좋아 9월부터 11월까지 일일 생산량이 10% 정도 늘어날 정도의 자연조건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일부 지역의 폭설과 홍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일 최고 집유량도 8천만리터를 기록하여 새로운 집유기록을 갱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뉴질랜드 유제품 수요는 동남아시아, 중국, 중동, 북미지역을 확대되어 이같은 수출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폰테라 연간 유제품 생산량은 2백만톤에 종사자는 1만6천여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www.chinadaily.com.cn 1월 19일자)

중국, 약재 불구 폭발적 유제품 수요 대처에 고심

중국 정부가 '08년 멜라민 사태 이후 중국 유제품에 대한 불신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유제품 수요대처에 고심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전통적인 우유 외에 요거트나 녹차향 등이 가미된 스무티 등 다양한 유제품 수요가 늘어 수입량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중국 내 분유 수입량은 55만톤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갈

은 물량은 '10년 40만6천톤을 훨씬 상회하는 물량으로 젓소 산유량기준 90만 생산분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경제분석기관들에 따르면 소비자 유제품 지출액은 '06년 이래 40%가 늘었으며 '10년과 '16년 사이 유제품 시장은 2배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유제품 수요에도 불구하고 중국 젓소는 생산량이 4천kg 수준이며 근친도가 높고 유방염 감염우도 30% 정도로 항생제 사용이 많아 생산된 우유의 소비자 신뢰도가 높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젓소농가들이 규모화 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일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04년 90%의 농가가 10두 미만의 젓소를 사육한 반면 현재는 이 비율이 40%로 개선되었으며 1천두 이상 사육하는 목장의 젓소가 전체 젓소 중 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유명한 유업체인 네슬레나 미국의 제네탈 밀즈사 등이 중국 내 품질관리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여 개선될 조짐이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hostednews/afp 1월 16일자)

네슬레社 중국 내 우유증산에 대규모 투자

스위스내 최대 다국적 기업인 네슬레사가 중국 명유 유업등이 오염된 유제품으로 소비자 신뢰를 잃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내 우유 생산 증산을 위해 3억9천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하였다. 향후 5년간 시행될 이번 투자 계획중 일부는 중국 북동지역 슈양첸시 낙농연구소 건립에 쓰여 낙농가들이 현대화된 방식으로 양질의 우유를 생산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 2~3년간 6억 위안을 투자하여 생산설비도 대대적으로 확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발표는 중국내 최대 유업체인 명유유업 유제품에서 독성 물질이 발표되었다는 보도 직후 나온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번 투자로 매년 중국 내 우유생산량을 8~

10%정도 늘릴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중국 내 분유시장에서 12%와 1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미드존슨사와 프랑스 다농사 점유율 중 향후 5년 이내 다농사 매출액을 따라 잡는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네슬레사는 지난해 중국 내 스넥과자류 제조업체와 식품회사 지분 60%를 인수하여 시장 진출을 확대한 바 있다.

(www.bloomberg.com 1월 10일자)

호주, 최대 건조 수출국으로 중국시장 대비

호주 건조생산업체가 장래 최대 건조 수출국으로 중국시장을 대비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호주 조사료협회에 따르면 현재 호주산 연맥건초 최대 수입국은 일본으로 연간 230만톤을 수입해가는 반면 중국은 2만5천톤을 수입하는데 불과하지만, 일본 내 젓소 사육두수가 180만두이고 중국 내 젓소가 1천3백만두인 것을 감안하면 최대수출국으로 중국시장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국 내 유제품 수요가 늘면서 호주산 건조수입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호주정부는 중국과 무역협정을 맺어 건조 수출이 훨씬 용이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건조 수요증가로 비싼 가격과 중국 내 젓소 사육농가가 대부분 20두 미만으로 영세하고 건조 유통체계가 미비한 것이 제약점이 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호주산 건조는 중국 외에도 중동에서의 수요가 큰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맥 외에 알팔파 등 두과 목초의 수출도 적극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

(fw.farmonline.com.au 1월 7일자)